

# ‘통합방위태세 유공’ 전남도,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 화랑훈련 등 전 분야 우수...민·관·군경·소방 협력 성과 인정

### 황기연 도지사 권한대행 “협력체계 강화...도민 생명·재산 보호”

전남도가 통합방위태세 유공으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 능력을 인정받아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은 합동참모본부 가 전국 17개 시·도의 통합방위 운영 능력을 평가한 결과, 전남도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과 전시·평시 통합방위시스템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광주·전남 화랑훈련에서 상황관리와 비상대응계획,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속한 상황공유와 8개 기관 영상회의, CCTV 연계 모니터링 등으로 상황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또 대피시설 수용 인원 사전 지정과 홍보체계 개선 등 주민 중심 비상대피계획을 마련하고, 급수 운반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비상급수 대응력을 높였다. 광양 공설운동장 WMD 대응 훈련에서는 민·관·군·경·소방 합동 대량사상자

대응이 만점을 받아 현장 대응력을 입증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실전 중심 통합방위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만큼 통합방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가 직접 알린다!” 여수시 공직자들 변신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 앞장

여수시가 오는 9월에 개최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시청 행정안전국 직원들이 직접 홍보에 나서며 섬박람회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해 앞장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국 직원들은 섬박람회 입장권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영상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영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행정안전국 직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작됐으며, 섬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아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홍보영상은 4월 초 여수시 공식 유튜브와 SNS ‘여수이야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여수시 행정안전국 직원들은 섬박람회 입장권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영상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촬영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여수시

제작에 참여한 한 직원은 “여수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동료들과 함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영상이 시민 참여를 유도해 많은 분들이 여수를 찾아주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열정적인 홍보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섬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들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열린다. 전남도민은 전기간권을 50% 할인된 3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섬박람회 공식 누리집과 인터파크 NOL 앱에서 매 가능하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광주새마을회-서영대, 지역사회 발전 ‘맞손’

### 혁신성장 연계 공동사업 개발 등 협력

광주새마을회(회장 류재선)와 서영대학교(총장 김경수)가 24일 서영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국가 및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광주새마을회와 서영대학교가 상호협력해 공동사업 개발, 대학새마을운동아리 운영 등 광주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산업과 지역 혁신성장 연계 공동사업 개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대학 내 대학생 새마을운동 동아리 운영·관리 지원, 국내외 새마을운동 봉사활동 프로그램 대학생 참여, 교육·학습 관련 연구 및 행사의 지원·참여 등을 함께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류재선 광주새마을회 회장은 “혜의



광주새마을회와 서영대학교가 24일 서영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국가 및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업사업, 취업연계프로그램, 새마을지도자와의 협업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화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스포츠전문성 향상...전남 체육 미래 그린다”

### 전남도체육회, 2026 스포츠클럽 관계자 직무교육

전남도체육회가 지역 스포츠클럽 전문성과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본격 나섰다.

전남도체육회는 24일 오후 2시 도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전남 스포츠클럽 관계자 직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스포츠클럽 관계자 40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도내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및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클럽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서는 먼저 스포츠 인권교육이 진행됐다.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권 침해 예방하기 위

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도를 높였다. 이어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과 제2회 전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 추진 계획이 소개되며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신규 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도 공유됐다.

새롭게 추진되는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유소년의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준별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체험 캠프, 학생동아리 생활체육 대축제, 전라남도 체육영재 선발대회 등으로 구성



전남도체육회는 24일 도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전남 스포츠클럽 관계자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된다.

또 2026년 1분기 국고보조금 공모 성과와 향후 공모사업 신청 방향을 안내하며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마지막에는 스포츠클럽 관계자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시간을 마련해 공경하고 투명한 클럽 운영

의지를 함께 다졌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자 미래 체육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라며 “이번 교육이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공모사업과 유소년 체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박기복 감독의 신작 ‘밥’과 전작 ‘낙화진향-꽃은 저도 향기는 남는다’를 함께 선보인 윤니버스 특별 시사회가 지난 최근 광주영상북합문화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박기복 영화 ‘밥’·‘낙화진향’ 시사회 ‘성료’

### 기념 공연 등 진행...5·18정신 헌법 가치 확산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오마주한 영화 ‘밥’ 릴레이 시사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박기복 감독의 신작 ‘밥’과 전작 ‘낙화진향-꽃은 저도 향기는 남는다’를 함께 선보인 윤니버스 특별 시사회가 지난 최근 광주영상북합문화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시사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시사회에 앞서 진행된 식전 행사는 5·18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시사회에서 상영된 작품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닌 현

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역사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사회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5·18 정신의 헌법적 가치 확립과 문화적 확산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영화 상영 외에도 한강 작가와 북구 효동추진구 김항미씨가 시 ‘회상’을 낭송한 데 이어 전소연 전통무용가의 살풀이춤 공연, 팬타곤 조우상 대표의 팬플루트 연주가 이어지며 5·18의 기억과 치유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했다.

한편, 릴레이 시사회를 주최한 ㈜당발레필름은 광주 동구, 남구, 북구, 서구, 광산구를 비롯해 전남 순천, 여수, 목포, 광양 등으로 릴레이 순회 상영회를 펼칠 예정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재)광주비엔날레·(주)늘위문화예술 업무협약

### ‘비엔날레’ 성공 협력...새로운 소통 구조 마련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대표 이사 윤범모)와 문화·예술 미디어 스타트업 ㈜늘위 문화예술(대표 오대우·이지현)은 최근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소통 구조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콘텐츠 제작 역량과 홍보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동 프로젝션을 전개해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새로운 관람층 유입 확대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SNS 전용 콘텐츠와 미디어 협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매체 확산에 주력함으로써 동시대 예술을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는 공식 채널과 주요 행사 등을 통해 ㈜늘위 문화예술을 공식 파



트너로 소개하고, ㈜늘위 문화예술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비엔날레 프로그램과 현장 이야기를 다각도로 조망하며 상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너는 내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를 주제로, 9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72일간 진행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